

[현장 & 현장 사람들 3\*: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고경수 목사]

##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의 타자를 끌어 안다

이민경\*\*

‘다문화’는 최근 한국사회를 읽는 주요한 키워드지만, 이주 노동자는 ‘다문화 정책’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살고 있거나,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 가정은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sup>

이번 호에서는 이주 노동자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온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의 고경수 목사님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가정과 함께 해 온 그의 자취들을 통해 다문화 한국사회의 다양한 풍경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sup>2</sup>

---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학술적인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현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시도로 지역사회 단체 탐방 코너를 마련하였다. 최대한 개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장에 계신 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자 한다.

\*\* 대구대, 교육학, minkyung0503@daegu.ac.kr

1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가정은 가족결합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은 가족 이주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유엔이 제정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7개 조약 가운데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초기 적응과정이 끝나면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2 이 인터뷰는 2013년 10월 6일 이교일 연구원과 함께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이교일 연구원이 정리한 녹취록을 수정·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주노동자를 접하다

**고:** 제가 2001년 대구 노숙자 생활시설에서 남성 노숙인들과 함께 상담지원도 하고 생활 숙소 지원하면서 자활을 돕는 기관에서 지원 업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일반 교회 성도 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갈릴리 마을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하자, 그래서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노숙하는 이주 노동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위한 노동비자를, 그때만 해도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회사를 나오고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왜냐면 만기가 됐을 때 한 번에 돈을 주고 출국 시키는 건데, 그 친구가 무작정 이탈을 하고 나와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중에 상담하면서 들으니까 일하면서 폭행도 당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노숙자보다도 더 사회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현장도 너무도 열악하고 법 제도 자체도 문제도 있고 또 목사로서 선교적인 비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03년 11월 달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애환 속에서 아버지를 보다

**고:** 노동자 아버지를 둔 아들로, 40년 정도 방직회사를 다니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노동자의 애환을 온몸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 삶의 현장도 제가 저의 아버지가 지켜본 것 그것처럼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의 현장이,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나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만나면 제가 이주노동자 입장이 되다보니까 혹시 내가 이주노동자 이거 한다고 하면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제가 늘 후원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외부적 후원이 없으면 이걸 운영을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서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무슨 행사를 해도 맡는 만큼 채워주시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고:**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 자체가 그들의 생활전반을 함께 다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동문제, 의료문제, 또 복지문제, 외국인이기에 오는 문화적 간격이 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화적 욕구 이런 것들이 한데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인권 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고경수 목사

하다 보니까 일단 인력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사역자들도 전임 사역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재정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다만 함께 하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신앙고백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최저임금도 안 되고 아주 열악한 임금과 생활비를 받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책임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죠. 가정적으로도 가정에 무책임하다 해야 하나..... 가정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자가 있는 사람들보다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직률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받고 1년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귀국을 하던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가던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섬겨가자는 마인드로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테이션이 계속 반복되니까 짧게는 1년, 길어봐야 3년, 4년 주기로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단체로서 주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선도 내지는 선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거는 이미 구조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는 분들이, VIP로 이분들이 잠시 왔다 다녀가도 잠시라도 이곳이 피난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그들을 편하게 설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역할을 하자 그러고 있죠.

#### 이주 노동자와의 연대와 교감의 시간들

**고:** 많은 분들은 아니고 소수지만 10년 동안 저희들 초창기 멤버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이주민 선교센터의 사업목표 자체가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 노동문제, 그리고 복지문화와 종합해서 선교적인 사업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처음부터 세워서 지금까지 내용의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전체의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4년, 5년 전에 시도를 했죠. 이주민 가정 어린이, 소위 미등록 노동자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탁아방을 3년, 4년 가까이 했어요. 시작할 때는 그게 없었고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서포트 사업이 있었어요. 노동부에서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어린이집 탁아방 선생님을 뽑아서 한 3년 했는데, 뒤 정책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저희 자체 상황이 열악하니까 2명, 3명의 보육교사를 운영했는데, 3개월 정도 했는데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500만 원 정도 빛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체로는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해서 이주노동자 자녀 돌봄 센터 어린이집이 폐쇄되었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대구시는 합법 불법을 떠난 모

든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그거를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안을 내면 우리가 이런 사업과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틀은 잡혀 있는데 워낙에 예산이 아주 작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 해온 사업 중에 안 된 게 없었는데, 제가 애지중지했던 탁아사업이 문을 닫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애를 낳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든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핏덩이로 3~10개월째 아이만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아이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아이의 모습도 그렇고, 그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는 부모들의 정서적 문제도 심각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본국의 가족들도 희생해야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갓난쟁이의 발육이나 정서문제 모든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유아·영아 때 엄마와 같이 못 살고 떨어지는 아픈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저런 문제는 해결해주면 좋겠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지만 저녁에라도 애와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법, 합법을 떠나 한국에서 태어난다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이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활동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다  
**고:** 명함을 돌리고 당신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은 초창기 때 했던 거고, 본인들을 돕는 시스템이 있다는 입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지금은 저희가 나가는 건 없고 찾아와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고, 이미 저희 회원 수가 중국만 해도 현재 있는 분들만 500명, 베트남은 300-400명, 오늘은 조금 소수로 와서 100명 정도 왔지만, 100

명 중에 매주 오는 사람이 있고, 매달 오는 사람이 있고, 한번 오는 사람이 있고, 행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건 멤버십에 따라 다른데 일 년에 한번 오는 사람도 회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종잡으면 일 년에 3,000명 정도 센터를 다녀갑니다. 상담이나 행사 등을 종합해보면 3,000명 정도 일 년에 다녀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인원의 90% 정도는 우리 대구·경북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고 10%는 경남·경인지역이 있다는 사람들, 다시 이쪽으로 재취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미 저희 센터는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나면 추석 때 행사를 이번에 경주로 데려갔지만 추석 위로 행사를 하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티켓을 나눠주면서 그 날 참여하라고 하는데, 1,000명 가까이가 와요. 그 중에 90% 가까이는 저희 교회를 왔던 사람, 지금은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건 안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은 뜬하죠. 거의 다 한 번은 센터에서 상담받고 어떻게든 지원 받고 그런 사람들 중 거의 90%는 와요. 모르는 사람 100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만도 1,500명, 2,000명 되고.

#### 지역사회의 연대를 꿈꾸다

**고:** 교회단체,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 교회 목회자들끼리는 부분적으로 함께하는데 내용적으로 이주민들이 함께 연합해서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긴밀하지 않아요. 제가 초청 전화를 보내도 그 교회 그 센터 행사지, 좀 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친구들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있고, 다만 저희가 지역의 이주민 이주 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위한 연대회의 지역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15개 단체가 되어 있고, 경산이주민 상담소인가? 경산 이주민 노동자 상담소 센터, 성서공단에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국, 이런 곳과는 직접적으로 이주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역에서 제도적인 문제 출입국문제 등을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 통합 서비스 차원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는데, 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의료시스템 의료 봉사시스템, 어떤 다른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시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현장업무는 본인들이 상담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하면 본인들이 편안히 들고 나갈 수 있는 작은 지원센터 이런 데서 감당하고. 굳이 나눈다면 몸으로 하는 것은 각 지역 센터에서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역자치단체에서 하고 하면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하는 일하고 우리가 교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의 일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또 제도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받을 디터놓을 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자연장 문제나 사업장 변경 문제라던가를 갖고는 합법 노동자들도 찾아오지만 그거 외에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오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도권 안에 다 넣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개별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의 복지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문화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재정, 인력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데가 아니라, 또 규모가 있으니까 일을 실행해 나가는데 교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들은 백그라운드 없으니까 다 몸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역자치단체와 각 지역 센터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 한국사회에 대한 희망과 바람들

**고:** 저는 낙관적이지 않은데, 한국 이주역사가 좀 더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움직임이 몇 해 전부터 계속 있어왔어요. 노동조합에 임원도 뽑고 위원자들도 잡혀가고 했었는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결성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계속

법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 속에서는 그런 조직 일반 지역주민으로써 자기들의 자리매김 이런 부분들도 인정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것이 무슨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게 합법적인 사람과 불법적인 체류자와, 이것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언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구시가 이것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을 누군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상담하고 누군가를 통해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에 노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나라 수준자체가 소득 GDP 격차가 크니까 빨리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죠. 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누구에게든 비자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한국에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 작은 변화들로 인한 보람과 성과

**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적인 내면의 연결이지 가시적으로 뭘 이루어 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보람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현지법인 투자업체 그런 것이 시행됐어요. 현지에서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 나라의 노동자 임금을 주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현지 투자 법인이라고 산업 연수생 법 말고 현지 투자 법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산업연수생부터 시작해서 제도자체가 노동착취를 위한 편법을 쓴 거죠. [...]에는 그 법이 사라지고 정말 한국에 와있는 이 사람들이 미흡하지만 노동자라고 근로자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것을 위해 저희가 무진 애썼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향상되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하나의 보람이면 보람이죠.

###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를 기대하며

고: 저희는 대상되는 이주민들이 어떻게 한국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루고 돌아갈 수 있을까, 차별 권리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인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받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미터로 놓고 그것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한편이다.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해나가는 분들의 협력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 출입국이라던가 노동부라던가,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지금은 사업주 보호를 위해서 노동부 노동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마인드나 정책이나 적용을 해 나가는 것들을 당할 때는 아직도 한국의 법 인식과 법 집행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죠. 가끔씩은 출입국에 권익증진 위원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주민들과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면 차별화된 정책을 계속 개척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이주민들을 만나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공공허가제 지금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좀 더 떳떳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서로 좋은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정책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틀은 만들어 놓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 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이 절실한데, 그것을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 가는 데 내용과 형식이 명확해야 하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주체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데 기관중심의 네트워크, 저는 그게 아쉽다. 기관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누가 뭐가 되고, 누가 주도하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각 단체를 통일

해서 네트워크가 되지만 단체중심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이주민들이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어서 연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록]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주요 현황

주소 및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2-7 도남목욕탕 3층 (우편번호)705-825 ○ 전화 : 053-636-4171 ○ FAX : 053-636-4171      ○ E-mail : barnabako@hanmail.net ○ 인터넷 홈페이지 : www.mission4you.net										
설립목적	대구·경북지역의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평화롭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목적을 둔다.										
단체연혁	○ 2003.11.11. :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설립 / 대봉동 사무실 ○ 2003.11.14. : '외국인근로자 쉼터' 개소 / 진천동 ○ 2006.01.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문화육구 총족사업' 시행 ○ 2006.09.20.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에벤에셀 키즈센터' 개소 ○ 2007.05.21. :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을 위한 대구의료원 협약 체결 ○ 2012.03.28. : '대구이주민선교센터'로 센터 명칭 변경 ○ 2013.11.19. : 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음악회 및 이주민 사진전 실시										
센터 조직도	<pre>                 graph TD                     A[총회] --&gt; B[운영위원회]                     B --&gt; C[대표]                     C --&gt; D[선교 센터]                     C --&gt; E[후원회]                     C --&gt; F[자원 봉사]                     C --&gt; G["이주민 교민회 (중국,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가나 등)"]                     C --&gt; H[협력기관]                     H --- I["- 의료 지원 기관 - 법률 지원 기관 - 이주 연대회의"]             </pre>										
주요사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부분</th> <th>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권보호 및 상담사업</td> <td>이주노동자 임금체불상담, 산업재해, 출입국 관련, 의료지원, 국제결혼이주가정 문제(가정폭력, 이혼 등) 상담</td> </tr> <tr> <td>이주민 제도개선사업</td> <td>세계 노동절, 고용허가제 시행일,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 개최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정부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등)</td> </tr> <tr> <td>이주민 문화지원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지원사업</td> <td>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한글교실, 문화 역사기행) 문화 행사 지원: 명절(설, 추석), 다문화 축제, 여름캠프, 체육대회, 소풍 등 이주민 문화체험 및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생명·평화 학교/농촌체험 프로그램, 불링 동아리)</td> </tr> <tr> <td>이주민 복지사업</td> <td>무료 진료 사업, 쉼터 운영, 귀국적응 프로그램, 국가별 귀국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지 교민회 구성(베트남 하노이 우정 모임/중국 청도 우정 모임)</td> </tr> </tbody> </table>	사업부분	사업내용	인권보호 및 상담사업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상담, 산업재해, 출입국 관련, 의료지원, 국제결혼이주가정 문제(가정폭력, 이혼 등) 상담	이주민 제도개선사업	세계 노동절, 고용허가제 시행일,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 개최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정부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등)	이주민 문화지원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지원사업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한글교실, 문화 역사기행) 문화 행사 지원: 명절(설, 추석), 다문화 축제, 여름캠프, 체육대회, 소풍 등 이주민 문화체험 및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생명·평화 학교/농촌체험 프로그램, 불링 동아리)	이주민 복지사업	무료 진료 사업, 쉼터 운영, 귀국적응 프로그램, 국가별 귀국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지 교민회 구성(베트남 하노이 우정 모임/중국 청도 우정 모임)
사업부분	사업내용										
인권보호 및 상담사업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상담, 산업재해, 출입국 관련, 의료지원, 국제결혼이주가정 문제(가정폭력, 이혼 등) 상담										
이주민 제도개선사업	세계 노동절, 고용허가제 시행일,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 개최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정부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등)										
이주민 문화지원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지원사업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한글교실, 문화 역사기행) 문화 행사 지원: 명절(설, 추석), 다문화 축제, 여름캠프, 체육대회, 소풍 등 이주민 문화체험 및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생명·평화 학교/농촌체험 프로그램, 불링 동아리)										
이주민 복지사업	무료 진료 사업, 쉼터 운영, 귀국적응 프로그램, 국가별 귀국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지 교민회 구성(베트남 하노이 우정 모임/중국 청도 우정 모임)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주요 사진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예배 장면



중국인 공동체 마을 모임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강제추방 사례발표회



명절 행사 / 설날



이미용 자원봉사



결핵협회 건강검진 자원봉사